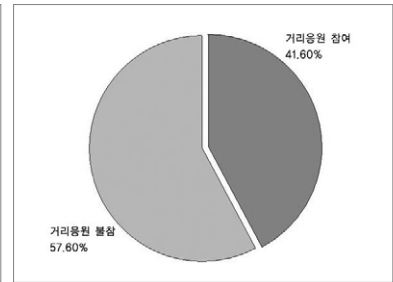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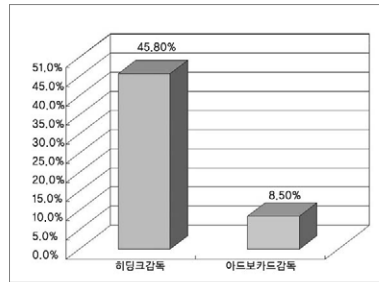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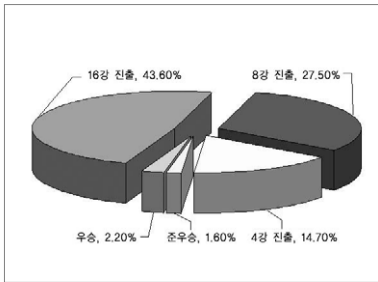


## ★ 그댄 나의 Champion ★




붉은 6월이 시작되었다. 독일월드컵은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18시(한국시간 6월 10일 01시)에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시작으로 그 화려한 서막을 올린다. 독일월드컵은 7월 9일까지 한 달간 전 세계를 축구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것이다. 우리나라는 6월 18일 오후 10시 토고와의 첫 경기를 갖는다. 이번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의 여부가 가장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고를 이겨야 한다. 2002 한일월드컵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.

**독일월드컵에서의 예상 성적(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)**

16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응답이 43.6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8강 진출이 27.5%, 4강 진출이라는 응답이 14.7%로 뒤를 이었다. 준우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.6%였고, 우승할 것이라는 응답도 2.2%나 됐다. 이밖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.3%에 그쳤고, 6.1%는 모르겠다고 답했다. 또한 2002년 4강의 위업을 이룬 거스 히딩크 감독과 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딕 아드보카트 감독의 비교에서

는 히딩크 감독에게 훨씬 후한 점수를 줬다. 두 감독의 능력 비교에서 45.8%가 히딩크 감독이 낫다고 응답했고, 아드보카트 감독이 낫다는 응답은 8.5%였다. 이밖에 독일 월드컵 때 거리응원에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41.6%만이 참여의사를 밝혔고, 57.1%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.

**아드보카트호의 평가(축구지도자 304명을 대상)**

한국축구연구소는 축구지도자 3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축구대표팀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62.9점으로 평가하였다. '수비 → 공격 → 미드필더' 순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으며, 미드필더는 67.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, 수비는 52.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하였다. 한편 독일월드컵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는 단연 박주영(62.2%)선수가 꼽혔다. 그 뒤를 이어 백지훈과 조원희가 51명의 지지를 얻었다. 

출처 : (주)플애플, 한국축구연구소